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1992)

주왕기[†] · 서정혜^{††} · 주진형^{††} · 김형준[†]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국약물남용 연구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Drug abuse among adolescence and puevention(1992)

Wang Kee Jhoo, Hye Seo, Jin Hyung Jhoo,
and Hyoung chun and Hyoung chun Kim

Cllegy of pharmacy kang won University, chun cheon, 200-701, korea

Korea institute of Drug albuse chun cheon, 200-701, Korea

School of Medic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5-742, Korea

The use of drug or substance for altering consciousness among adolescence is a practice in modern society, especially in Korea.

The choice and pattern of use a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user's personality and expectations.

The government and society institute must be declared the emergency of Drug abus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adolescence from psychotropic agents.

서 론

인간이 향정신성 약물(psychotropic agents)을 사용한 역사적 근거는 기원전 4000년전에 수메르 사람(Sumerian)들이 이미 아편(opium)을 사용하고 있었다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의 의미를 갖는 향정신성 약물의 비의학적 사용(non-medical use), 즉 약물남용 현상(drug abuse phenomena)은 1960년대 미국의 사회불안과 사회불만 그리고 정치불안과 정치불만에서 비롯됐다.¹⁾ 처음 미국의 약물남용 문제를 촉발시킨 그룹은 대학생들로,

[†] 강원대학교 약학교, 한국약물남용연구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이러 모든 청소년층으로 번졌으며, 주로 해외 주둔 미국 군인들에 의하여 전세계로 확산됐다. 해방이후로 미군이 상주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²⁾. 현대의 의미를 갖는 한국의 약물남용 문제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문제로 나타났지만 그 이전에도 향정신성 약물의 사회적 문제는 있어왔다. 그렇게 보았을 때 1960년대를 전후해서는 마약(아편, 물편 등)이 사회문제를 야기시켰으며 1970년대는 대마와 수면 진정약(barbiturates 등), 1980년대는 각성약인 암페타민(필로폰, 또는 같은 뜻의 일본 발음인 허로뽕)과 항불안약(신경 안정약)인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s) 그리고 진해약인 덱스트로메토펜(dextromethorphan) 이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위에 열거한 약물에 선진형(?) 남용약물인 코카인(cocaine) 과 엘에스디(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그리고 헤로인(heroin)이 추가되고 있어 현대의 선진형 남용약물이 거의 모두 침투되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한국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약물중에는 '주사용' 진통약인 날부핀(nalbuphine)이 상당히 폭넓게 확산되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청소년들은 경구용 약물에 친숙(?)해왔지 주사용 약물에는 익숙하지 못하였다. 결국 한국의 청소년들도 선진국형 약물문화로 오염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1990년대는 선진국형인 복합약물남용(polydrug abuse)현상과 '주사약물 문화권'이 형성될 전망이다. 한국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남용 약물은 외국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불법적 약물(illegal drug)이 아닌 합법적 약물(legal drug)이다. 불법적 약물의 남용은 의약인에게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책임이 없다. 그러나 합법적인 약물의 남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불안과 불만에 의한 간접 책임을 제외하면 의약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 앞으로 의약인들이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예방에 앞장 서야겠다.

조 사 방 법

청소년의 약물남용 문제는 선진국은 물론 중 후진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몇나라를 제외하고는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청소년 약물남용 문제의 역사는 20여년이 되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한 두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 선진국의 경우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조사는 매년 일정기간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그들과 같이 매년 실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청소년 약물상을 밝혀냄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조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1. 조 사 대 상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 3,756명(남자 1,817명, 여자 1,939명), 중학생 3,611명(남자 1,810명, 여자 1,801명), 국민학생 532명(남자 258명, 여자 274명), 근로청 소년 777명(남자 439명, 여자 338명), 그리고 남자 소년원생 25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2. 조사 방법^{3,4)}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 :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The University of Michigan의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실시하는 조사방법과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발행한 약물남용 실태조사 지침서의 설문 내용을 참고로 하여 만든 설문지를 본조사에서 사용하였다.

3. 조사 기간

조사는 1992년 5~11월중에 행하여졌다.

4. 조사 내용

항정신성 약물 및 남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포함하여 모두 14가지 약물의 남용도를 조사했다.

조 사 결 과

1.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 비교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1-6).

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약물남용 실태
 약물남용 경험도는 흡연 29.4%(남 55.1%, 여 3.7%), 음주 45.1%(남 72.6%, 여 17.5%), 흡입제 2.0%(남 3.3% 0.7%), 대마초 1.0%(남 2.0%, 0.0%), 코카인 0.3%(남 0.4%,

여 0.1%), 각성제 7.2%(남 9.5%, 여 4.8%), 암페타민 0.1%(남 0.2%, 여 0.0%), 마약0.2%(남 0.3%, 여 0.0%), 환각제 0.6%(남 1.0%, 여 0.2%), 신경 안정제 1.7%(남 2.0%, 여 1.3%), 수면제 3.8%(남 6.4%, 여 1.2%), 진통제 27.7%(남 31.8%, 여 23.5%), 진해제 1.0%(남 1.4%, 여 0.5%), 항히스타민제 0.1%(남 0.1%, 여 0.0%)로 나타났다(표1).

②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약물남용 실태
 약물남용 경험도는 흡연 18.2%(남 28.1%, 여 8.3%), 음주 31.9%(남 38.8%, 여 25.1%), 흡입제 1.2%(남 1.5%, 여 0.9%), 대마초 0.2%(남 0.2%, 여 0.2%), 코카인 0.1%(남 0.0%, 여 0.1%), 각성제 5.3%(남 5.9%, 여 4.6%), 암페타민 0.2%(남 0.2%, 여 0.1%), 마약 0.2%(남 0.2%, 여 0.1%), 환각제 0.4%(남 0.3%, 여 0.5%), 신경안정제 1.6%(남 0.9%, 여 2.3%), 수면제 3.0%(남 2.9%, 여 3.0%), 진통제 29.9%(남 24.5%, 여 35.2%), 진해제 2.2%(남 0.7%, 여 3.6%), 항히스타민제 2.4%(남 0.0%, 여 4.8%)로 나타났다(표 1).

③ 국민학생들의 약물남용 실태
 약물남용 경험도는 흡연 4.3%(남 8.1%, 여 0.4%), 음주 10.6%(남 14.3%, 여 6.9%), 흡입제 1.0%(남 1.6%, 여 0.4%), 코카인 0.1%(남 0.2%, 여 0.0%), 환각제 0.2%(남 0.4%, 여 0.0%), 신경안정제 0.4%(남 0.4%, 여 0.4%), 수면제 1.4%(남 1.5%, 여 1.5%), 진통제 16.6%(남 18.6%, 여 14.6%), 진해제 3.5%(남 4.7%, 여 2.2%)로 나타났다. 비록 코카인과 환각제 사용 경험자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약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약물의 종류를 구별하지 못하여 포인트를 준 것으로 생각된다(표1).

④ 근로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

약물남용 경험도는 흡연 38.9%(남 73.9%, 여 3.9%), 음주 56.6%(남 79.0%, 여 34.1%), 흡입제 5.4%(남 7.1%, 여 3.6%), 대마초 2.4%(남 4.1%, 여 0.6%), 코카인 1.1%(남 0.7%, 여 1.5%), 각성제 5.0%(남 6.6%, 여 3.3%), 마약 암페타민 0.6%(남 0.9%, 여 0.3%), 환각제 2.1%(남 3.2%, 여 0.9%), 신경

안정제 4.4%(남 4.6%, 여 4.2%), 수면제 7.7%(남 9.8%, 여 5.6%), 진통제 26.5%(남 22.0%, 여 30.9%), 진해제 0.9%(남 0.9%, 여 0.9%), 항히스타민제 0.6%(남 0.2%, 여 0.9%)로 나타났다(표1).

⑤ 소년원생들의 약물남용 실태

약물남용 경험도는 흡연 96.5%, 술 91.4%, 흡입제 48.2%, 대마초 10.2%, 코카인 0.8%, 각성제 4.7%, 암페타민 0.8%, 마약 0.8%, 환각제 7.8%, 신경안정제 5.5%, 수면제 8.2%, 진통제 23.5%, 진해제 5.5%, 항히스타민제 0.8%,로 나타났다(표1).

표 1. 한국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 비교(1992)

	고등학생			중학생			국민학생			근로청소년			소년원생
	남자	여자	합	남자	여자	합	남자	여자	합	남자	여자	합	남자
조사대상수	1871	1939	3756	1810	1801	3611	258	274	532	439	338	777	258
약물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담배	55.1	3.7	29.4	28.1	8.3	18.2	8.1	0.4	4.3	73.9	3.9	38.9	96.5
술	72.6	17.5	45.1	38.8	25.1	32.0	14.3	6.9	10.6	79.0	34.1	56.6	91.4
흡입제	3.3	0.7	2.0	1.5	0.9	1.2	1.6	0.4	1.0	7.1	3.6	5.4	91.4
대마초	2.0	0.0	1.0	0.2	0.2	0.2	0.0	0.0	0.0	4.1	0.6	2.4	10.2
코카인	0.4	0.1	0.3	0.3	0.0	0.1	0.1	0.2	0.0	0.1	1.5	1.1	0.8
각성제	9.5	4.8	7.2	5.9	4.6	5.3	0.0	0.0	0.0	6.6	3.3	5.0	4.7
암페타민	0.2	0.0	0.1	0.2	0.1	0.2	0.0	0.0	0.0	0.9	0.3	0.6	0.8
마약	0.3	0.0	0.2	0.2	0.1	0.2	0.0	0.0	0.0	0.0	0.3	0.2	0.8
환각제	1.0	0.2	0.0	0.3	0.5	0.4	0.4	0.0	0.2	3.2	0.9	2.1	7.8
신경안정제	2.0	1.3	1.7	0.9	2.3	1.6	0.4	0.4	0.4	4.6	4.2	4.4	5.5
수면제	6.4	1.2	3.8	2.9	3.0	3.0	1.2	1.5	1.4	9.8	5.6	7.7	8.2
진통제	31.8	23.5	27.7	24.5	35.2	29.9	18.6	14.6	16.6	22.0	30.9	26.5	23.5
진해제	1.4	0.5	1.0	0.7	3.6	2.2	4.7	2.2	3.5	0.9	0.9	0.9	5.5
항히스타민제	0.1	0.1	0.1	0.0	4.8	2.4	0.0	0.0	0.0	0.2	0.9	0.6	0.8

흡입제 : 본드, 가스 각성제 : 카페인 함유제제 암페타민 : 필로폰

표 2. 한국 청소년들의 30일 이내 약물남용실태 비교(1992)

(단위 : %)

약	물	고등학생			중학생			국민학생			근로청소년			소년원생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담배		43.6	1.7	22.7	17.2	4.3	10.8	1.9	0.0	1.0	65.9	2.1	34.0	70.6
술		58.4	9.6	34.0	21.7	11.6	16.7	2.7	0.4	1.6	72.5	25.5	49.0	63.5
흡입제		1.1	0.5	0.8	0.4	0.6	0.5	0.4	0.0	0.2	1.8	2.4	2.1	23.5
대마초		0.5	0.0	0.3	0.0	0.1	0.1	0.0	0.0	0.0	1.1	0.3	0.7	0.6
코카인		0.2	0.0	0.1	0.0	0.0	0.0	0.0	0.0	0.0	0.5	0.9	0.7	0.8
각성제		3.9	1.5	2.7	4.6	2.7	3.7	0.0	0.0	0.0	1.6	1.2	1.4	2.0
암페타민		0.1	0.0	0.1	0.0	0.0	0.0	0.0	0.0	0.0	0.2	0.3	0.3	0.4
마약		0.1	0.0	0.1	0.0	0.1	0.1	0.0	0.0	0.0	0.0	0.3	0.2	0.4
환각제		0.4	0.1	0.3	0.1	0.3	0.2	0.0	0.0	0.0	1.1	0.3	0.7	4.4
신경안정제		1.2	0.2	0.7	0.3	1.1	0.7	0.0	0.0	0.0	1.1	2.1	1.6	2.4
수면제		2.8	0.2	1.5	1.7	0.9	1.3	0.4	1.5	1.0	3.7	2.1	2.9	2.4
진통제		17.0	13.5	15.3	13.5	23.0	18.3	9.3	8.0	8.7	11.0	19.9	15.5	9.4
진해제		0.5	0.0	0.3	0.5	2.1	1.3	2.3	0.7	1.5	0.2	0.3	0.3	3.6
항히스타민제		0.0	0.0	0.0	0.0	2.5	1.3	0.0	0.0	0.0	0.0	0.6	0.3	0.8

흡입제 : 본드, 가스 각성제 : 카페인 함유제제 암페타민 : 필로폰

표 3. 한국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 비교(매일 사용자) (1992)

약	물	고등학생			중학생			국민학생			근로청소년			소년원생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여자	평균	남자
담배		22.9	1.0	12.0	2.0	0.1	1.1	0.0	0.0	0.0	46.8	0.6	23.7	48.7
술		4.6	0.3	2.4	0.3	0.0	0.2	0.0	0.0	0.0	14.7	0.0	7.4	20.0
흡입제		0.0	0.0	0.0	0.0	0.1	0.1	0.0	0.0	0.0	0.2	1.5	0.9	1.6
대마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8
코카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0.2	0.4
각성제		0.0	0.0	0.0	0.1	0.0	0.1	0.0	0.0	0.0	0.0	0.0	0.0	0.4
암페타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마약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환각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0.2	0.4
신경안정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수면제		0.0	0.0	0.0	0.0	0.1	0.1	0.0	0.0	0.0	0.0	0.0	0.0	0.4
진통제		0.1	0.0	0.1	0.0	0.0	0.0	0.0	0.2	0.1	0.9	0.3	0.6	0.8
진해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항히스타민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흡입제 : 본드, 가스 각성제 : 카페인 함유제제 암페타민 : 필로폰

표 4. 한국과 미국 고3학생들의 약물남용 실태 비교⁴⁾

(단위: %)

약	물	한	남		자		여		자		한		국	
			국		미		국		미		국		미	
			1992	1982	1990	1982	1992	1982	1990	1982	1992	1982	1990	1982
담	배	55.1	69.6	64.1	67.8	3.7	5.7	64.4	72.0	29.4	37.7	63.1	70.1	
		72.6	90.1	90.0	93.3	17.5	41.5	89.1	92.4	45.1	65.8	88.0	92.8	
흡	입	3.3	7.4	21.7	15.3	0.7	4.9	14.1	10.4	2.0	6.2	18.0	17.7	
		2.0	3.3	43.6	61.5	0.0	0.1	37.4	55.5	1.0	1.7	36.7	58.7	
대	코	0.4	-	11.5	18.0	0.0	-	7.2	13.7	0.3	-	7.8	16.0	
		9.5	21.8	-	-	4.8	37.4	-	-	7.2	29.6	-	-	
각	성	0.2	-	17.2	26.8	0.0	-	17.8	28.1	0.1	-	15.4	27.9	
		0.3	0.3	9.0	10.6	0.0	0.2	7.5	8.6	0.2	0.3	6.6	9.6	
환	각	1.0	0.7	11.7	14.4	0.2	0.5	6.8	10.2	0.6	1.1	10.0	14.3	
		2.0	5.7	7.2	13.8	1.3	7.2	7.1	14.1	1.7	1.6	7.2	14.0	
수	면	6.4	-	5.1	16.0	1.2	-	5.0	14.1	3.8	-	6.7	15.2	
		31.8	-	-	-	23.5	-	-	-	27.7	-	-	-	
진	봉	1.4	7.1	-	-	0.5	11.7	-	-	1.0	9.4	-	-	
		0.1	0.5	-	-	0.0	1.2	-	-	0.1	0.9	-	-	

흡입제: 본드, 가스 각성제: 카페인 함유제제 암페타민: 필로폰-조사 안됨

표 5. 한국과 미국 고3학생들의 30일 이내 약물남용 실태 비교

(단위: %)

약	물	한	남		자		여		자		한		국	
			국		미		국		미		국		미	
			1 9 92	1 9 82	1 9 90	1 9 82	1 9 92	1 9 82	1 9 90	1 9 82	1 9 92	1 9 82	1 9 90	1 9 82
담	배	43.6	44.3	29.1	26.8	1.7	0.9	29.2	32.6	22.7	23.1	28.3	30.0	
		58.3	56.4	61.3	74.1	9.6	10.4	52.3	65.4	34.0	33.9	54.0	69.7	
흡	입	1.1	0.9	3.5	2.0	0.5	0.8	2.0	1.1	2.2	0.9	2.4	1.5	
		0.5	0.1	16.1	31.4	0.0	0.0	11.5	24.9	0.3	0.1	13.8	28.5	
대	코	0.2	0.1	2.3	5.9	0.0	-	1.3	3.8	0.1	-	1.4	5.0	
		3.9	11.1	-	-	1.5	20.9	-	-	2.7	15.9	-	-	
각	성	0.1	-	3.7	0.2	0.0	-	3.6	10.6	0.1	-	3.2	13.7	
		0.1	0.3	1.6	6.6	0.0	0.2	1.4	4.6	0.1	0.2	0.2	1.8	
환	각	0.4	0.5	3.2	9.6	0.1	0.4	1.0	6.1	0.3	0.4	2.2	4.1	
		1.2	3.5	1.2	2.6	0.2	2.6	1.2	2.2	0.7	3.2	1.4	2.4	
수	면	2.8	-	0.6	3.5	0.2	-	1.1	3.1	1.5	-	1.5	3.4	
		17.0	-	-	-	13.5	-	-	-	15.3	-	-	-	
진	봉	0.5	2.1	-	-	0.0	3.8	-	-	0.3	3.0	-	-	
		0.0	0.2	-	-	0.0	0.4	-	-	0.0	0.4	-	-	

흡입제: 본드, 가스 각성제: 카페인 함유제제 암페타민: 필로폰-조사 안됨

표 6. 한국 고3 학생들의 약물남용 실태 비교

(단위: %)

년	1980		1982		1989		1990		1991		1992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지	(춘천)		(강원)		(전국)		(강원)		(강원)		(전국)										
약물·음수	199	198	397	988	944	1932	2950	6240	2607	2463	5070	442	445	887	1817	1939	3756				
담	배	83.7	6.1	44.9	69.6	5.7	37.7	58.0	16.1	37.1	67.6	7.6	37.6	54.9	4.9	29.9	55.1	3.7	29.4		
술		94.4	63.9	79.1	90.1	41.5	65.8	84.1	52.1	68.1	45.7	40.0	62.9	74.6	33.6	54.1	72.6	17.5	45.1		
흡	입	제	18.6	11.1	14.9	7.4	4.9	6.2	3.8	2.6	3.2	9.4	1.0	5.2	4.3	0.7	2.5	3.3	0.7	2.0	
대	마	초	8.7	0.0	4.4	3.3	0.1	1.7	3.0	1.3	2.2	3.9	0.2	2.1	0.2	0.9	0.6	2.0	0.0	1.0	
코	카	인	-	-	-	-	-	-	1.1	1.0	1.1	0.4	1.2	0.8	0.7	0.2	0.5	0.4	0.1	0.3	
각	성	제	29.6	35.1	32.4	21.8	37.4	29.6	17.2	16.7	17.0	8.2	8.9	8.6	6.1	11.0	8.6	9.5	4.8	7.2	
암	페	타	민	-	-	-	-	-	0.3	0.6	0.5	0.3	0.1	0.2	0.0	0.2	0.1	0.2	0.0	0.1	
마	약	-	-	-	-	0.3	0.2	0.3	0.4	0.5	0.5	0.2	0.1	0.2	0.0	0.2	0.1	0.3	0.0	0.2	
환	각	제	-	-	-	1.7	0.5	1.1	2.0	0.9	1.5	2.6	0.1	1.4	0.9	0.0	0.5	1.0	0.2	0.6	
신	경	안	정	제	-	5.7	7.1	6.4	2.3	2.2	2.3	4.4	4.3	4.4	2.5	2.2	2.4	2.0	1.3	1.7	
진	정	수	면	제	-	-	-	-	4.2	3.3	3.8	7.3	4.8	6.1	3.4	3.1	3.3	6.4	1.2	3.8	
진	통	제	-	-	-	-	-	-	33.2	34.0	33.6	33.3	44.8	39.1	22.2	21.6	26.9	31.8	23.5	22.7	
진	해	제	-	-	-	7.1	11.7	9.4	1.3	0.9	1.1	2.8	0.8	1.8	0.7	0.2	0.5	1.4	0.5	1.6	
항	해	스	타	면	제	-	0.5	1.2	0.9	1.4	1.1	1.3	0.6	0.2	0.4	0.2	0.5	0.4	0.1	0.0	0.1

흡입제: 분도, 가스 각성제: 카페인 함유제제 암페타민: 필로폰-조사 안일

고찰

1. 한국의 약물남용 실태

현재 한국의 약물남용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 아직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정부차원의 조사가 한번도 이루어진적이 없기 때문이다.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일 뿐이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나타난 한국의 마약류 사범수를 보면 표8과 같다.

사범수를 보면 1985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1991년에는 마약사범이 263%, 대마사범이 247%, 그리고 향정사범이 231%나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1985년 1,190명에서 1991년 3,133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1988년에는 3,939명, 1989년에는 3,876명, 그리고 1990년에는 4,222명이나 됐다. 현재로서는 마약류 사범의 증·감을 예측 할 수 없다.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비록 마약류 사범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의 남용현상의 감소라기보다는 합법적인 타약품로의 전환도 고려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표 8. 한국의 마약류 사범수⁹⁾

		(단위 : 명수)								
년	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명	수	1,190	1,629	2,016	3,939	3,876	4,222	3,133	2,968	
법	명	(100%)	(137%)	(169%)	(331%)	(326%)	(355%)	(263%)	(182%)	
마	약	361	375	239	268	857	1,215	838	949	
		(100%)	(104%)	(64%)	(74%)	(237%)	(337%)	(263%)	(253%)	
대	마	328	392	318	351	1,025	1,450	1,138	1,054	
		(100%)	(120%)	(97%)	(107%)	(313%)	(442%)	(347%)	(269%)	
향	정	501	861	1,459	3,320	1,994	1,557	1,157	965	
		(100%)	(172%)	(291%)	(663%)	(398%)	(311%)	(231%)	(112%)	

대마법 : 대마관리법 향정법 :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청소년 사범수(표9)는 알아봐야 대마사범 1백여명 정도 그리고 향정사범 십수명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숫자는 청소년 설문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간접사범실태 파악에는 도움이 안되며 그렇게 보았을 때 성인의 사범 실태도 실제의 파악에는 도움이 될 수 없다.

실제로 한 대학교 학생중 지난 약 20년간 대마 흡연으로 당국에 검거된 예는 없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들 학생 중 1974년 조사에 의하면 33%가 대마 흡연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흡연 경험자의 50%정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한국의 마약류 소년(15-19세) 사범수⁶⁾

(단위 : 명수)

년	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명	수	34	77	270	138	124	100	76
법	명	(2.1%)	(3.8%)	(6.8%)	(3.6%)	(2.9%)	(3.2%)	(2.6%)
마	약	-	-	-	-	1	-	1
	법					(0.1%)		(0.1%)
대	마	24	29	51	127	110	97	71
	법	(6.1%)	(9.1%)	(14.5%)	(12.4%)	(7.6%)	(8.5%)	(6.7%)
합	정	10	48	219	11	13	3	4
	법	(1.2%)	(3.3%)	(6.6%)	(0.5%)	(0.9%)	(0.3%)	(0.4%)

()은 당해년 타연령과의 비교분포

2.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⁷⁻¹³⁾

청소년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는 거짓양성(false positive)보다는 거짓음성(false negative)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설문 조사시 그들의 응답 '정직도'를 보면 20-40%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나 흡연의 경우는 정직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약물의 경우, 즉 대마나 필로폰 그리고 본드의 경우 정직한 대답을 안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설문 결과만을 갖고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를 판단하기보다는 약물에 따라서는 중·감시여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았을때 흡입제나 대마초의 경우 조사치보다 높은 남용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예산'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조사집단이 광범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핵심이 되는 고 3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4가지 약물에 대한 고 3학생들의 약물남용도 조사를 보면,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의 학생들은 코카인(0.3%), 암페타민(0.1%), 마약(0.2%), 환각제(0.6%),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약물에 대한 지식이 없고 종류들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유중의 하나는 아직도 한국의 경우에는 실제의 환각제(LSD 등)가 적발 압수된 적이 근년에 한 두 세건 밖에 없고 코카인과 암페타민의 시중가격(1회 사용가격 약 10~40만원)으로 보았을때 그들이 구입하여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마약의 경우도 현재의 법규제하에서는 학생들 손에 닿기는 어렵다. 면담을 통한 보다 세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해열성(비마약성) 진통제 사용자가 27.7%로 나타났다. '70년을 전후한 때 수면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가 상당히

남용된 적이 있어 사회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타약물(본드, 가스, 진해제 등)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실제의 남용경험이라기 보다는 일부는 그들이 의학적 사용과 비의학적 사용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여 생긴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수면제, 신경안정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의 경우도 남용(비의학적 사용)만을 용담했다기 보다는 사용(의학적 사용)인 경우도 일부는 포함됐다고 보여진다. 현재 청소년 층에 친숙해져 있는 남용약물은 술, 담배, 본드와 가스, 대마초, 각성제 그리고 진해제 등이다. 사실 그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약물의 남용도를 비교 추이 해 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유는 당시의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약물 등이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비교 자체가 무리이다. 하지만 경향을 감지 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필자의 조사 결과들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담 배 : 필자에 의한 그간의 고3 학생들의 흡연경험 실태는 1980년 44.9%(남 83.7%, 여 6.1%), 1982년 38.5%(남69.6%, 여 5.7%), 1989년 39.5%(남62.2%, 여 16.8% 춘천 조사)와 37.1%(남58.0%, 여 16.1% 전국조사), 1990년 37.6%(남67.6%, 여 7.6%), 1991년 29.9%(남54.9%, 여 4.9%), 1992년 29.4%(남 55.1%, 여 3.7%)로 나타났다. 남녀학생들의 흡연실태는 평형이거나 다소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② 술 :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1980년 79.2%(남 94.4%, 여 63.9%), 1982년 65.8%(남

90.1%, 여 41.5%), 1989년 70.1%(남92.0%, 여 48.2% 춘천조사)와 68.2%(남84.2%, 여 52.1% 전국조사), 1990년 62.9%(남85.7%, 여 40.0%), 1991년 54.1%(남74.6%, 여 33.6%), 1992년 45.1%(남72.6%, 여 17.5%)로 나타났다. 조사의 불일치 등으로 확증적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지만 음주 실태는 다소 감소하거나 평형이라고 보여진다.

③ 대 마 : 필자가 1974년 조사한 대학생들의 대마흡연 실태를 보면 남자 대학생의 33% 여자대학생의 3%가 대마 흡연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50% 정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도 조사에서는 중3학생의 3.8%와 고3학생의 5.8% 그리고 대학생의 11.7%가 대마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도와 1982년도의 조사를 보면 남자 고3학생의 8.7%와 3.3%가 대마흡연 경험이 있었고 남자 대학생의 22%와 12.5%(1981년)가 대마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1년과 1992년 조사에서는 고3학생의 0.6%와 1.0%가 대마흡연 경험이 있었다. 이같은 대마흡연 인구의 감소경향은 그간의 법적용(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관리법 제20조)과 제몽, 교육이 상당한 실효를 거둔 것으로 생각된다.

④ 각성제 :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각성제는 카페인 제제를 지칭한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1977년 조사에서는 고3학생의 26.4%가 각성제 복용 경험이 있었으며 이후의 조사에서는 고3 학생들의 1980년 32.4%(남

29.6%, 여 35.1%), 1982년 29.4%(남 21.8%, 여 37.4%), 1989년 17.0%(남 17.2%, 여 16.7%), 1990년 8.6%(남 8.2%, 여 8.9%), 1991년 8.6%(남 6.1%, 여 11.0%), 1992년 7.2%(남 9.5%, 여 4.8%)가 각성제 복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각성제(카페인정제)사용 감소현상은 지금은 점점마다 많은 가정들이 커피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물남용 실태가 증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방법 등이 일치하여야 한다. 즉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지역, 조사약물 등이 같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조사를 보면 일치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을 보고 증·감을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필자가 그간 조사하여 본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현상이 가장 심각한 미국에 비하여 볼 때 반하는 것으로 그들은 1980년을 정점으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표4, 5).

그들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으로 약물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아울러 사회적인 계몽에도 철저를 기해왔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는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여 왔는지를 반성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한 약물남용 예방교육은 전연 실시 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면 타 수업시간을 이용한 주의식 전달이 고작이거나 아니면 대상에 맞지도 않는 슬라이드나 비디오 시청이었을 것이다. 증거의 하나는 아직도 약물 교육을 시켜야 할 교사나

대치교사가 양성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약인이라고 해서 약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약물의 부작용이나 해독 지식만 갖고는 안되며 약물남용 분야의 상당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상당 기간의 연수나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 의·약단체중 자신들을 대상으로한 약물남용 예방교육에 상당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 단체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없다. 다만 있다면 중·고등학교 생활 지도교사를 위한 2-3시간의 약물 남용교육이다. 이 정도의 시간은 교사를 위한 간단한 약물교육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이 그 같은 정도의 지식을 갖고 학생을 교육시키기에는 미흡하다. 우선 급한대로 약물남용 교육을 담당하여야 할 교사를 양성하려고 한다면 학교마다 배치되어 있는 양호교사를 이용함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학생들과의 접촉기회가 그들이 가장 많기 때문이고 약물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고생만이 약물교육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어야 하다는 것과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국민학생들도 약물에 상당수가 노출되어 있음을 볼 때 국민학생들의 약물남용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 되어야겠다.

예 방 대 책

참고로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몇가지 대책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한국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현상은 의·

약인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유는 외국의 경우 불법적인 약물이 남용되지만 우리의 경우는 합법적인 약물(제약회사, 도매상, 약국, 병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한 약물)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약물(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등)은 의약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합법적인 약물(벤조디아제핀, 텍스트로 메롤판, 지페프롤, 날부핀 등)은 의·약인에게 책임이 있다. 비록 법적으로는 판매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비의학적적으로 약물을 남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판매할 때에는 양심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며 직업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의·약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청소년 예방교육보다도 우선하여야겠으며 그들로 하여금 직업의 윤리성 교육도 아울러 강화하여야겠다. 그리고 그 교육들은 반복되어야 한다.

2) UN이나 선진국이 규제하지 않는 약물일 지라고 한국에서 그 약물이 청소년층이나 성인층에 광범위하게 남용될 경우 법적 규제를 하여야 한다. 특히 그 약물이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고 금단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예: 날부핀 등의 경우). 남용약물은 날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다시말해서 선진국에서 남용되고 있지 않은 약물이 중진국이나 후진국에서는 남용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법이 반드시 UN에 의한 규제법이나 선진국의 규제법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나라에 따라 나름대로의 규제법을 제정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외국 청소년들의 경우 불법적인 약물의 구입이 합법적인 약물보다

훨씬 용이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약물을 남용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약물을 남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법적규제는 당연하다. 수 많은 청소년들이 합법적인 약물을 남용하다 사망한 예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현재 한국은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① 마약법 ② 대마관리법 ③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이 있는데 통합시켜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야 바람직하다.

4) 현재 마약법, 향정법, 대마관리법의 투약 사범에 대한 벌칙규정을 보면 마약법, 향정법, 대마법 위반 순으로 벌칙이 강화되었다(남용 약물 관계법령 참조). 다시말해 마약법 위반 투약 사범이 벌을 제일 적게 받고 향정법 위반 투약 사범이 2배 이상 높게 벌을 받고 대마법 위반 투약 사범도 그렇다. 법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 형편에 맞게 벌이 가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법의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겠다.

5) 마약류 규제법의 모순과 의약분업의 미실시로 미국에선 메스암페타민(히로뽀)과 같은 항목(Schedule II drug)으로 분류하여 통제하고 있는 메칠페니데이트를 그리고 펜디메트라진(Schedule III drug)을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6) 약물남용 현상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하여서 ① 사회조사 ② 법제정과 개정 ③ 교육과 계몽 ④ 치료와 재활의 4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중 우리의 현 상황은 법제정만이 되어 있을 뿐이다. 앞으로 사회조사하는 물론 교육과 계몽,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정부와 사회단체 그리고 학계 등의 참여가 요구된다.

7) 그간의 여러조사를 참고하여 예견하여 보면 앞으로 상당기간은 약물남용 인구가 증가하리라고 생각한다. 약물남용 인구의 증가현상과 감소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한"해의 조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선진국과 같이 매년 일정 기간을 택하여 약물남용의 사회조사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8) 중·고등학교에서 약물(남용)교육이 전연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약물교육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70년대의 학교 약사제도를 부활시켜 그들로 하여금 학교 약물교육을 담당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9) 학교 약사를 이용함이 어려운 경우 양호교사나 일반교사를 이용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할 경우 그들에게 최소한 상당(30시간 이상) 시간의 약물교육이 선행 실시 되어야겠다. 현재 매년 보건 사회부에서 학교 생활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시간 정도의 약물교육으로는 그들이 학생들의 약물교육을 담당 할 수 없다.

10) 약물남용 예방교사를 위한 연수과정 설치: 현재 약물남용 예방을 담당하여야 할 교사를 교육시키는 기관이나 단체는 한 곳도 없다. 때문에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담당하여야 할 교사가 현재로서는 없다. 고로 그같은 목적의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양성할 수 있는 연수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의 시설은 학생 청소년이 아닌 일반 청소년이나

특수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필요하다고 할때 그들도 수용하여 교육시켜야 하며 일정기간의 연수과정이 끝나면 그들에게 수료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약물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 교재는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구별되어야 하며 교사용은 약물지식을 높이는 교재, 가치관과 결정기술을 높이는 교재, 사회적응 기술을 높이는 교재 등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대상 청소년(초·중·고생, 근로·비행 청소년 등) 또는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12) 약물교육의 내용은 약물자체의 지식전달보다는 건강(보건)교육을 위주로 한 약물 지식전달이어야 한다. 일례로 최근 선진국의 약물교육은 6개의 건강 수칙(흡연·음주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을 위주로 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그 안에 약물교육을 병행한다.

13) 최근 필자의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국민학교 학생들의 상당수가 남용약물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부의 순회 약물교육의 대상에 초등 교사도 포함시켜야 되겠다.

14)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부가 후원하는 약물남용 예방 단체인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가 만들어져 있어 매년 수십차례의 UN관장국제 회의를 갖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NGO가 조직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물남용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계몽을 담당하여야 할 사회단체가 전무한 상태다. 빠른 시일내에 정부나 도(지방자치)가 예산 상으로 후원하는

사회단체가 만들어져야겠다. 그리고 그러한 단체의 계몽활동은 1회성이 아닌 지속성이어야 한다.

15) 현재 우리나라에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 하나도 없다. 애용 치료소가 있을 뿐이다. 현재 전문병원을 건설중이라고 하니 곧 해결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중독자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인이 전무한 상태라는데 있다. 정부가 인력을 해외에 보내어 전문인 양성을 서둘러야 하겠다. 아울러 재활소나 재활단체도 만들어야겠다.

16)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물남용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① 사회조사 ② 법제정 및 개정 ③ 교육과 계몽 ④ 치료와 재활에 관한 제문제를 연구함은 물론 약물남용에 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에 대하여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이나 민간차원의 연구기관이 하나도 없다. 비록 필자의 연구소가 개인의 힘으로 미약하나마 극히 일부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국가의 장래와도 관련 지을 수 있는 이 사업은 정부가 선진국과 같이 직접 연구소(미국의 국립 약물남용 연구소: NIDA 등)를 만들거나 아니면 연구재단(캐나다의 약물남용연구재단: ARF 등)을 정부의 투자나 후원으로 설립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17) 약물남용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제회의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질때 직접 관련 정부 유관단체 요원만 참석시키지 말고 관련 학계나 사회단체, 그리고 관련 정부기관 단체 요원들도 참석시켜 국제회의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필요성이 있다.

18) 청소년들이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흡입)하고 있는 본드류와 가스류의 경우 본드류는 환경치 소관이고 가스류는 동자부 소관이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환경치는 본드류의 성분 중의 하나인 유기용매의 유통관정만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유기 용매를 이용한 본드류 생산량의 현황이나 판매에는 전연 규제의 손길을 뻗고 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만 만들어져 있을 뿐, 청소년 유해화학물질 흡입을 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여하한 노력(유인물, slide, video 등)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스류를 관장하고 있는 동자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두 정부기관은 본드류와 가스류의 청소년 흡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겠다.

19) 청소년 약물남용 문제를 예방·억제하기 위하여선 교육부(청소년 약물교육 및 교재개발), 보건 사회부(남용약물에 대한 교육·계몽·홍보), 동자부(부탄가스), 환경처(본드), 국세청(술), 검찰청·경찰청(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미성년자 보호법), 담배 인삼공사(담배)가 '직접'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예방·억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은 검·경찰과 보사부 뿐이다. 그리고 타 부서는 노력이 전무한 상태이다. 모든 관련부서의 각성이 필요하다.

결 론

현재의 한국 청소년상은 미래의 한국상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청소년상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미래의 한국상도 상처받게 된다.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무절제한 행동에서 비롯된 도덕관과 윤리관의 퇴락으로 무수한 상처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 치고 있으며 그 탈출 대상으로 각종 약물을 선택하고 있다. 향정신성 약물은 정신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작용이 있어 인간으로 하여금 본능적 행위를 유도한다. 인간의 본능적 행위는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킨다. 결국 청소년들은 각종 비행과 범죄속으로 잠식되게 되며 그로인하여 개인의 파멸은 물론 가정, 사회, 국가를 어렵게 만든다. 현재 한국의 청소년 약물상을 보면 모든 청소년층에 남용 약물이 침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중학생을 포함하여 국민학생들까지도 약물에 오염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약물남용 현상을 예방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서는 ① 사회조사 ② 법제정 및 개정 ③ 교육과 계몽 ④ 치료와 재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법 제정만을 통한 법 운영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나머지는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교육과 계몽이지만 교육을 담당하여야 할 인력이 전연 양성되고 있지 못한 것은 물론 전담 계몽 단체도 없는 상태나 다름없다. 이유는 현재 '마약 퇴치 국민운동본부'가 정부 후원 및 권장으로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활동상황은 예산상의 문제로 거의 한 두세번의 행사 이외에는 별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하루 속히 정부와 사회단체는 청소년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비상사태도 선포하여야 할 단계이다. 수 많은 청소년들이 약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약물로부터 보호하자.

참 고 문 헌

- 1) Beschner, G. M. and Friedman, A. S. Introduction. In : Beshner, G. M. and Friedman, A. S. eds. : Youth drug abuse. Lexington Books, Lexington, Massachusetts. pp. 1-14, 1979.
- 2) Jhoo, W. K. and Heo, M. Y. : Marijuana use among Korean rural college students in Chun-Cheon(1974). Journal of Student Guidance, Kangweon National University, pp. 115-123, 1982
- 3) Smart, R. G., Hughes, P. H., Johnston, L. D., Anumonye, A., khant, U., Maria, Elena Medina Mora, Navaratnam, V., Vichai Poshyachinda, Varma, V. K., and Wadud, K. A. : A methodology for student drug-use surveys. WHO, Geneva, pp. 55, 1980.
- 4) Jlnhston, L. D., O'Malley, P. M. and Bachman, J. G. : Drug use among American high school seniors, college students and young adults(1975-1990).
- 5)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1991). 대검찰청, p.23, 1992.
- 6)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1991). 대검찰청,

- pp.52-59, 1992.
- 7) 주왕기, 이한교, 심용철, 김형춘 :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병원약사회지, Vol. 7, No. 2, pp. 96-111, 1990
 - 8) 주왕기, 오수일, 전완주, 김수희, 주진형, 김형춘 :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약물남용과 비행 경험실태. 약물남용 실태조사. 한국약물남용연구소, pp. 19-45, 1991.
 - 9) Jhoo, W. K. and Heo, M. Y. : Marijuana use among Korean rural college students in Chun-Cheon(1974). Journal of Student Guidance, Kangweon National University, pp. 115-123, 1982.
 - 10) Jhoo, W. K. : Drug use among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Kangweon National University, Vol 18, pp. 161+183, 1983
 - 11) Jhoo, W. K., Lee, K. S., Hel, M. Y. Ro, S. K. and Choi, Y. U. : Drug abuse in Korea(3). The Journal of Juvenile Delinquency, Reseach Institute on Juvenile Delinquency, Kangweon National University, pp. 85-108, 1982.
 - 12) Jhoo, W. K., Yoon, W. S., Hong, K. L., Rr, S. K., and Beak, H. J. Inhalants abuse among high school students. Research Institute for Physical Fitness, Kangweon National University, vol. 5. pp. 91-98, 1980.
 - 13) 주왕기 : 청소년 유해물품의 실태와 개선대책.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 체육부, pp. 453-537, 1992.